

8월31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820.02 (+31.14)		834.29 (-4.12)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838 (+0.050)		1369.85 (-2.65)



오늘부터 KTX·SRT 통합 운행

KTX와 SRT 통합 운영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오는 9월 1일부터 KTX와 SRT가 통합 운행되면서 고속열차 공급 좌석이 일주일 기준 약 11만6000석 늘어나고 KTX 운임은 구간에 따라 평균 10%가량 인하된다.

/뉴스

‘이상기후’ 먹거리 가격 수직상승 취약계층 금융비용 부담 커진다

고물가·고금리의 귀환 ❶ 폭염이 장바구니를 덮쳤다

고(高)물가와 고금리가 다시 가게를 압박하고 있다. 폭염과 기후변화는 농축수산물 가격을 끌어 올리며 장바구니 부담을 키우고, 고물가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발목을 잡는다. 높은 대출금리는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며 소비 여력도 떨어뜨린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맞물린 ‘이중 압박’ 속에서 서민·중산층의 가계살림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기록적인 폭염으로 장바구니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고온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농산물과 어류 등 신선식품 물가를 자극하고 있고,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 압력도 커졌다. 폭염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이 현실화하면서 가계의 생활비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8%로 집계됐다. 전월(3.2%)과 비교하면 0.4%포인트(p) 낮아졌지만, 지난해 같은기간(2.1%)과 비교하면 0.7%p 오른 수준이다.

❖ 폭염에 신선식품 가격 ‘들쭉’

문제는 전체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먹거리 부담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채소류와 어류 가격이 오르면서 가게가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생활물가지수는 7월 2.5%로 전월보다 0.9%p 낮아졌다. 다만 일부 신선식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파는 전년 동월 대비 18.3% 급등했고, 고등어는 7.0%, 조개류는 같은기간 6.3% 상승했다.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여름철 이상기후에 따른 공급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폭

전체 물가 상승세 둔화했지만 채소·생선 등 장바구니물가 ↑ 2분기 가게 식비 평균 89만원 저소득층 일수록 증가폭 더 커 ‘고물가 장기화’ 대출상환 등 영향

염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채소류의 생육과 출하가 차질을 빚고, 수온 상승 등으로 일부 수산물의 어획 여건도 악화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농수산물 가격 상승은 가공식품과 외식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식재료와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식품업체와 외식업체의 비용 부담도 커져 제품과 메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먹거리 물가 직격탄

실제 가게의 식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올해 2분기 전국 가구의 월평균 식비 지출은 89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식료품·비주류 음료 구입에 43만4000원, 외식 등 식사비에 45만7000원을 지출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식비 증가 폭이 컸다. 소득 2분위 가구의 월평균 식비 지출은 65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6.9%

늘어 전체 소득 분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1분위는 47만3000원으로 6.1% 증가했다. 반면 3분위는 84만1000원으로 2.0%, 4분위는 110만8000원으로 3.1% 늘었고, 5분위는 137만8000원으로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득분위는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5개 구간으로 나눈 지표다. 1분위는 소득 하위 20%, 2분위는 하위 20~40%, 3분위는 중간 20%, 4분위는 상위 20~40%, 5분위는 소득 상위 20%에 해당한다.

서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품목의 가격 상승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2분기 짬은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자는 11.1% 올랐고 간장과 달걀도 각각 9.3%, 9.0% 상승했다. 외식 품목에서도 삼각김밥과 떡볶이가 각각 4.0%, 자장면은 3.9%, 해장국은 3.8%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반복될 경우 먹거리 물가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농수산물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에 반영될 경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 부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먹거리와 외식비처럼 줄이기 어려운 필수지출이 늘어나면 저소득층일수록 다른 소비를 줄이거나 금융비용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물가가 장기화할 경우 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 감소뿐 아니라 대출 상환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社 告

메트로경제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 AX가 여는 혁신의 물류·모빌리티

물류와 모빌리티 산업에서 AX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AI는 물류와 모빌리티의 생산성, 효율성, 운영방식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탄소중립 규제는 물류·모빌리티 분야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AX는 비용, 효율, 탄소중립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등 여러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라는 허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AI→빅데이터→이동의 최적화→에너지 절감→탄소감축→지속가능한 미래 물류·모빌리티 완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제시하기 위해 [‘AX(인공지능 전환)×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모빌리티라는 주제로 11번째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 ◆ 행사명 :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
- ◆ 주제 : ‘AX(인공지능 전환)×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모빌리티
- ◆ 일시 : 2026년 9월16일(수) 14~17시(내빈 티타임 13시30분~14시)
-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 주최 :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 ◆ 등록 :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문의 : 물류&모빌리티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프로그램
- 기조강연 1 : 하성용 중부대 교수 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 [미래모빌리티 G3 혁신전략]
- 기조강연 2 : 박민영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겸 인하대 물류AX실증센터장 [변화, 혁신, 그리고 물류]
- 강연 1 : 감병우 대동그룹 개발부문장 [농업 모빌리티의 AX 및 GX 현황]
- 강연 2 :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 [New Commerce에 대응하는 물류]
- 강연 3 : 노재경 마스오토 부대표 [자율주행이 바꿀 한국 물류산업의 미래와 과제 -부산항 수출화물에서 미국 대륙횡단 왕복 노선까지]



metro

대규모 증설 나선 삼성·닉스 경쟁사 보다 높은 세율 변수

삼성전자, 2분기 유효세율 24.2% 하이닉스, 23.5%… TSMC, 18.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에 맞춰 대규모 증설에 나선 가운데 경쟁사보다 높은 세금 부담이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TSMC 등 글로벌 경쟁사와 세전이익을 100조원으로 가정하면 법인세비용은 최대 9조원 차이가 난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함께 효율적, 지속적 투자의 재원을 축소시켜 K-반도체 빅2의 중장기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두 회사의 2분기 법인세 비용은 총 51조6053억원에 달했다. 삼성전자가 22조8153억원, SK하이닉스가 약 28조7900억원으로 실효세율은 각각 24.2%, 23.5%였다.

반면 TSMC의 2분기 실효세율은 18.1%, 마이크론의 2026회계연도 3분기(3~5월)는 15.0%였다. 삼성전자와 비교하면 각각 6.1%p(포인트), 9.2%p 낮고 SK하이닉스와는 5.4%p, 약 8.5%p 차이가 났다. TSMC의 법인세비용은 1556억5000만대만달러(약 6조7000억원), 마이크론은 49억7800만달러(약 6조9000억원)였다.

실제 이익 규모를 같게 놓으면 차이는 더 분명해진다. 세전이익 100조원에 각사의 실효세율을 적용할 경우 삼성전자는 법인세비용이 24조2000억원, SK하이닉스는 23조5000억원인 반면 마이크론은 15조2000억원,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8조5000억원에 달한다.

기간을 상반기로 넓혀도 격차는 이어졌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ngja_tea@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이준석 “꿀페미들 겨우 정리했더니…차라리 중책을 하라” 용혜인 지명 비판
▲용혜인 성평등장관 후보, 내일 첫 출근…청문회 준비
/사진 뉴스

▲박지원 “이준석, 민주당 올 사람 아냐…김민석도 안 받을 것”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 없어”

▲與 “법사위 현안질의,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개최 않기로”
▲이진숙 “5·18에도 표현의 자유 적용돼야…유공자 문제 개정안 발의”